

人體의 造型性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崔鍾泰

目 次

1. 머리에
2. 人體를 조형으로 다루는 자세
3. 창작과 습작에 關하여
4. 미술사에 있어서의 人間의 形像
5. 20세기의 人間像
6. 材質과 人體造型과의 相關
7. 人體의 造型的 해석
 - A.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
 - B. 인체를 조형으로 해석하는立場
8. 結 語

1. 머리에

대학원에 있어서 인체의 過程은 보다 창의성의 개발에 주안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인체를 조형으로 소화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천년 내려오는 조형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그것을 익히고 각자의 주관과 개성과 사상을 근거로 형태를 개척해 나가야 할것이다. 인체의 해석은 무궁무진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또 느낌마다 변화하여 시간마다 다르게 보인다. 형태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작가의 인생관, 역사관, 또는 그가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심상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면서도 공평 타당성을 갖어야하며 보편성을 갖고 만. 인의 공감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미술사를 소화 극복하고 거기에서 이탈하는 것인데 그러면 미술사에 확고히 근거한다. 역사를 익혀 그것을 파괴하며 파괴하되 역사를 맥이 이어져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창작의 현장은 작가 자신의 현재를 파괴하는 것이다.

2. 人體를 조형으로 다루는 자세

조형의 바탕은 먼저 인체의 모든 부분을 한눈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련과정을 통해서 여러 부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구조적 특성을 해석하고 그것을 재조립 할수 있는 능력에 있다. 창작적 형태는 인체가 갖이는 필연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재조립된 형태이며 실제의 인체로부터 독립된 전혀 별개의 자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조각의 역사로 부터도 독립된 새로운 조각적 인간상이어야 한다.

어떤 한개의 부분만으로도 조형으로서 축하여 또 몇개의 부분이 어울려서 하나의 형태를 이룰때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또 많은 부분들로 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룰때도 성질이 다를 뿐이지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형성과 사상성의 표현에 있어서 작은 부분만으로 조형된 형태보다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체에 있어서 頭部라는 부분만으로도 무궁한 사상을 표현 할수 있고 무진한 깊은 조형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

조형의 이야기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조형의 이야기는 物量의 인테에 있지않다. 형태에 있어서 物量의 문제는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를 뿐이다. 보다더 강렬한 조형을 바라는 것인데 크기의 문제는 그때 그 상황속에서 재료와 형상성의 분위기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어떤경우 어쩔수 없이 고단한 크기로 밖에 될수 없는 어떤 한계상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때 그때의 형편이다.

3. 창작과 습작에 관하여

창작이란 것은 일조일석에 이룰수 있는것이 아니고 오랜 心身의 훈련과 정을 거쳐서 비로서 얻을수 있는 참으로 희귀한 자산이다. 역사를

바로 보고 미술사를 바로 이해하며 東西의 文化的價値를 해석하고 그것을 충실히 익히며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또한 자연(人體)을 근본적으로——해부학적 조직과 조형적 구조체로서——파악하고 미술사에 비추어 다시 비교 검토하는 훈련과정을 거치야 한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순간적인 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역사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역사를 초극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철학과 개성을 키워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시 역사에 기여하고 인간의 삶에 풍요한 온기를 더한다. 말하자면 창작 행위란 인간의 정신적 생명의 가장 온진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역사의 때는 빗고 오직 현재를 살면서 행위하며 그것을 형태로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참을성 있는 오랜 습작의 과정을 기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참을성 이야말로 창작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자질이다. 한치도 견디 빙수도 없고 불성실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차곡차곡 겹순하게 애정을 갖고 진실되게 다루어 나갈 것이다. 성급함과 불성실 이야말로 가장 큰 합정이다. 모든것을 절제하게 따져 나가되 자기의 현재에 대한 진실을 우선한다. 창작에 이르는 길은 멀고 창작의 끝은 아무도 알수 없이 깊은 것이어서 그래서 순간을 허위를 베풀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한 순간을 허위로 베푼다면 그것이 씨앗이되어 다음 순간에 영향을 주며 그것을 많이 용서하고 많이 묵인할 때 나중에 가시는 자신이 그 허위의 무덤에 갇히게 될것이며 눈이 어두어져서 세계와 사물이 본 모습대로 보이지않고 마침내 왜곡되게 보이며 그리하여 비진실을 진실인양 꾸며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창작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생명적이다. 反創作的인 것이야 말로 일시적으로 나마 역사를 오도하고 세상을 어지럽혀 없는이만 못하다. 그러므로 창작적활동은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따른다.

그리므로 긴 습작활동의 기간을 진실을 우선 하며 폭넓은 이해로 크게 침아내는 성실성을 보여야 할것이다.

인류의 문화유산은 다양하며 폭이넓고 그 깊이에 있어서도 병대해서 어느 한구석도 소홀히 넘길수 없고 그래서 限이 있을것 같지않은 각고의 노작을 감수하여야 한다. 短見은 큰 생명을 얻는데 위험성을 내포한다. 확실하고 안전하여 튼튼한 조형관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자유를 얻어서 그런연후에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창작적 행위는 끝없는 투쟁이다. 「역사로 부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며 사물을 현재의 눈으로 보기 위한 투쟁이며, 자신의 순수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리하여 진리에 이르고자하는 투쟁이며 자신의 구원을 얻기위한 투쟁이기도 한것이다.

형태를 탐구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며 온전한 삶을 탐구하는 것이며 바로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을 조차서 진정한 마음으로 큰 인내심과 용기를 갖고 이고 끝없는 투쟁정신으로써 보편성을 향한 진지한 노력으로서만 얻을수 있다.

4. 미술사에 있어서의 人間의 形像

창작이라는 것은 역사에 근거하여야 한다.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에서 소외되면 조형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서 왔든, 또는 현재 있어지고 있는 조형의 여러가지 문제성이 바로 역사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현상으로써 변화하는 것인데 나의 창작의 지향점은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하고 찾아야 한다,

이 역사속에서 인간의 형상이 表現的 대상이 되어진것은 원시사회때부터 비롯하였는데 인간이기에 人間에 대해서 관심하였을 것이다. 창작의 계기는 관심에 있다. 그 관심은 필연적 관심을 말하며 공연히 심심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관심하는 관심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편심하는 관심을 말한다. 그것은 절실한 것과 친근한 것과 그런것과 관계되어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理性的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의 문제에 이르게되며 그때부터 예술이 인간의 생활영역에서 한 중요한 문제성을 갖이게 된다. 가치의 구현단계에서, 입체적 형태가 인생의 본

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무렵부터 조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古代의 文明권을 기점으로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전의 원초적인 것에 까지 거슬려 올라가서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원시사회와 문명사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통한 思惟의 연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上代의 人體들, 에굽과 그리스의 彫像들 그리고 로마 중세, 인도, 중국, 한국…… 등의 역사에서 볼수 있는 人間像들은 대체로 종교적 또는 정신적 가치구현에 그 뜻이 있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각기 특수한 여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각의 형태는 그들 나름대로 해석되면서 이루어졌다. 한 시대와 한 지역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와 상관하면서 보다 소중한 것을 가산하여 탐구하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 때로는 神의 형상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평범한 서민이 되기도하며 귀족이 되기도하며 國家의 氣像을 나타내는 人間像이 되기도 한다. 죽음의 공포에 임하는 인간상이 되기도하며 영원에 대한 희원으로서의 人間像이 되기도하며 초월세계나 天上世界의 이야기를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뇌하는 인간상, 절망하는 인간상 저주 받는 인간상……. 서로 조각으로 표현된 인간의 형상은 다양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는限 폭넓게 형상화 되었다.

5. 20세기의 人間像

20세기에 와서는 인간의 형상이 조각적 형태로 탐구되는데 있어서 한 매체로서 선택되었다는 데에 특색이 있었다. 특히 그와 같은 현상은 前半期의 문제였다. 예술이 학문이나 종교나 또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생과 사회에 기여하여야 되겠다는 이론과 분야의 순수성이 요청되는 시기였다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조각은 가장 조각적으로만 있고 싶어진 것인데 그러자니 조각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관심하게 되었다.

인체는 자연의 여러 가지 형상에서도 가장 조형적으로 탐구할만 적절한 조각체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로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울」 「부우루렐」「데스피오」로 이어지는 소위 순수조각의 실현기로서, 큐비즘, 퀴비즘으로 이어진다. 일체의 비조각적 현상, 즉 의미성, 설화성, 상징성을 제거하고 오직 순수하게 조형체로서의 人體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추상조각이 대두하게 이르렀는데, 순수한 입체조형을 이룩하자니 人體로서의 제약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었다.

추상조각이 대두되면서 그 이후의 인체의 문제는 비 인간성에 대한 반작용이 관계된다. 그 반작용이라는 것은 인생과 자연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회의와 사색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특히 물질문명이 갖어온 혁점으로해서 인생과 역사의 문제가 다시금 예술가들로 하여금 다시 형태로 문제 삼게하는 것이다. 그 무렵 人體의 조각은 순수조형으로서의 형상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른 樣相으로 나타난다.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人間의 形像이 바로 그것이다.

현금에 있어서의 人體의 조형은 순수조형에의 반작용으로서, 비구상성의 조형에 대한 역사적 자각으로서 또는 기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회의와 반발을 그 바탕으로 한다. 상실해가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지엽으로 밀려날것 같은 예술성의 확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과 예술의 본래적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서 人間의 形像이 다시금 조각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재론하고 문명에 대한 비판, 허구에 대한 풍자, 자연에 대한 겸허한 자세, 그리하여 휴머니즘으로서의 예술이 추구되는 것이다.

진정한 창조는 모든 기존의 가치를 습득하고 소화하여 다시 현재성에 입각해서 인생과 자연과 우주의 근본에 접근해 들어간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야 한다. 가장 현재적인 가치아발로 영원한 가치세계에 공존할 수 있다. 현금의 조각에 있어서의 인간의 형상은 역사속에서 현재성의 탐색을 근간으로하여 真, 善, 美의 통합적 운영으로서의 예술지향적인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

히 예술에 있어서의 「善」의 문제가 可視的 형태로 구현되는데에 적절한 方便일 수 있으며 인간을 위한 가장 인간적인 형태……. 그것이 지금 인체를 조각의 매개체로시 대상으로 삼는 근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조형적 제약이 많은 人體(自然)를 그런 유미니즘의 차원으로 해석할 때 보다더 절실한 형태형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材質과 人體造型의 相關

형태를 계획해 너가는데 있어서 재질은 크게相關的關係를 갖인다. 특히 인체가 주제로 선택되었을때는 더욱 그렇다. 모든 可視的인 물질은 조각의 재료로서 선택될 수 있다. 재료는 각기 독특한 여러 성질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인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갖어준다. 재료가 달라졌을때는 그 성질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해 주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선 모양이 달라지고 또 취급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때 그때의 창의적 상황에 의해서 무궁한 변화가 생성된다. 동일한 형태를 여러가지 재료로 바꾸어 놓을때 무리가 생길수 있다. 형태는 재료의 성질이 가장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運用될때에만 부담없는 생명을 얻을수 있다.

재료는 작가의 그 표현코자하는 정신성과 크게 상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작자는 그의 이미지에 가장 역활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코자 할것이다. 그것은 제작자의 취향과도 크게 관계가 된다. 이 세계 안에는 무진장한 조각적 재료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 작가는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그 선택이어야말로 창작의 일환이다. 그가 무엇을 표현코자 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그가 이 세계에 어떤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제작자는 아마도 그가 행동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적절하며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재료를 선택할 것이다.

재료의 성질과 탐구하고자하는 작가의 목표와 방법(또는 연장)이 무리없는 조화를 이룰때 독자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 방법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적절히 선택된 재료를 어떻게 무리 없이 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방법이 다른 작가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좋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볼수없고 또 다른 재료에 동일하게 적용될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창작적 형태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작가가 그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재료가 선택되고 재료를 해석하는 창의적 경험에 의해서 그가 목표하는데에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코자하는 내용이 과거와 달라지는 데다가 현실적으로도 급격한 상황의 변화로하여 마땅히 방법은 달라지는데 따라서 인체에 있어서 재료의 한계는 누구도 규정 짓을수가 없는것이다. 오늘날 인체의 조각은 그동안의 많은 재료의 제약으로 부터 해방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재료의 특성에 마주어서 人體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재료가 선택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탐구의 매체로 쓴다면 주체인 작가의 의도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재질이 선택될 것이다.

재료는 형태를 이루는 매체일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감각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고 그 자체나름으로 독특한 생명력을 갖인다. 가장 온전한 형태는 그 재질 자체가 가장 자유로운 생명력을 발휘하며 그것이 또한 작가의 의도를 가장 충실히 대변하며 형태의 역사로 부터도 온전히 자유로운 침신한 생명체로써 時空을 넘어설 수 있는 당당한 존재일 때이다.

7. 人體의 조형적 해석

A.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

동양이전 서양이전간에 인체를 조형물로 다루는데 있어서 자연적 형상 그대로 되여진例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보다 합당하여야 되겠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조형충동이 가담하기 때문에 형태는 事實에서 이탈하여 인간상이 되 그 모양은 달라지는 것이다. 또 시대의 社會相과 철학이 크게 상관되고 있었는데 그로해서 시대적 구분, 지역적 구분이 생기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개인의 독창성이 제창되어서 그 양식에 있어 개

인체 구분이 두드러지게 생겨난다.

조형을 이루는데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조형의 요소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없는 재미가 있어서 형태는 끝없이 변화한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며 질 성질이 예술이란 본래가 이미 있었던것을 되풀이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다른 재미와 다른 의미를 찾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축명성을 갖인다. 금세 기에 있어서 눈에 띄게 모양이 급속하게 달라지는 것은 그 조형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佛像이 정적이고 중세의 聖像들이 수직성을 띠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이념과 사상으로하여 그렇게 된다.

볼륨을 특히 강조할 수 있고 面性을 크게 강조할 수 있고 공간성을 강조할 수 있고 사상성을 강조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이 강조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他的 요소를 제거할수도 있어서 형태는 무궁무진하게 변형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형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나의 옳바른 사실은 필연성을 갖는다. 근거없는 생명적 형태는 있을수 없다. 예술에 있어서 우연적인 것이 상관되기도 하는데 그 우연 이란것도 다른 각도에 서서 생각해 보면 필연인 것이다.

B. 인체를 조형으로 해석하는立場

인체는 수많은 부분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그 부분들은 각기 전체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각가는 모든 부분들을 통솔하고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을 이룰수 있도록 활용하여 전체에 기여 시켜야 한다. 인체에는 필요없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전체에 기여하게끔 역할 시킬수도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부분을 큰 부분으로 합축시켜서 전체성을 살리는 수도 있다. 작은 부분들이 큰 부분속에서 내재적으로 있게 될수록 형태는 단순화된다. 또한 부분들이

각자 독립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룰수도 있는데 어떤 한 부분이 독립하여 형태를 이룰려면 그것이 조형으로서 완전성을 갖게끔 배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분이 인체의 한 지체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형태로서 갖출것을 다 갖추게끔 의도적으로 해석하여 조각의 온전성을 찾는다.

부분은 각기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별한 성격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이다. 크게 보아서 頭部의 성격, 胸과의 성격, 膝반의 성격, 또 사지와 손발의 성격……. 그들 각기 다른 성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 특성을 발휘시켜서 전체로서 조화를 이룰때 온전한 생명체를 얻는다.

그런가하면 작가의 心境과 감성은 같은 형태라도 순간마다 다르게 보이며 어제의 분위기와 어제의 감각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오늘의 상태, 오로지 지금으로만 있는 것이어서 이 역사속에서 전무 후무한 자유를 향유한다. 그리하여 人體(자연)는 탐구자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무진장한 변화를 보여준다. 자연을 통해서 神의 섭리를 읽는다.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 까지도 읽는다. 예술가는 자연을 마주하며 자신의 소명을 보는 것이다.

8. 結 語

인체를 조형으로 다룬다는 것은 바로 조각의 全歴史와 대치한다는立場으로 볼수 있다. 유사이래의 세계 구석 구석에 산재한 인류의 조각적(문화적) 유산을 총괄, 분석하고 이성으로 또는 감성으로 그것을 소화 극복하며 그리하여 역사에서 이탈하여 자유를 얻고 오직 자기의 현재에 서서 사물을 관찰하며 세계를 관조하며 인생과 우주의 의미를 묵상하며 마침내 창조에 이른다. 창작의 근거는 진실에 있다. 진실에서 출발하여 진리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끝없는 刻苦의 劳作的 진한 탐색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